

구윤철 부총리, 美 베센트 재무장관과 면담

- 구윤철 부총리, 美 베센트 재무장관과 면담에서 대미투자 추진 현황, 외환 시장 동향, 핵심 광물, 주요20개국(G20) 주요 의제 등에 대해 양국 의견 교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하 구 부총리)은 4.17(금)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미국 재무장관과 미국 워싱턴 D.C. 재무부에서 만나 대미투자, 외환 시장, 핵심광물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구 부총리는 최근 여야합의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제정(3.12일)되는 등 양국이 합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이행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추진 현황을 설명했으며, 베센트 재무장관은 특별법 제정 등 정부 노력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또한, 양국 재무장관은 원화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Both ministers agreed that excessive volatility in the Korean Won is not desirable, and agreed to continue consultations on foreign exchange market developments.)

양국 재무장관은 최근 중동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핵심 광물 등 공급망 안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구 부총리는 한국 정부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26.2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하는 등 적극 대응 중임을 소개하였다. 또한, 구 부총리는 금년 G20 의장국인 미국의 주요 의제인 글로벌 성장과 불균형 문제 해결에 대한 논의를 지지하며, 이를 위해서는 AI 교육을 통한 인적 자원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국제금융국 금융협력과	책임자	과 장	심승현 (044-215-4830)
		담당자	사무관	변재만 (byun221@korea.kr)